

“두 번 다시 잘못 저지르지 않겠다”

일본 조동종 참사문비

9월 16일 군산 동국사서 제막

국내유일 일본식 사찰이며 일제강점기 민족의 수난사를 간직하고 있는 군산 동국사에 일본 조동종의 참사문비가 제막됐다. 군산 동국사(주지 종명)는 9월 16일 창건 104주년을 맞아 한일합동 다례제 및 일제강점기 희생자 합동위령제, 일본 조동종 참사문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일본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이하 동지회)' 회장 이치노헤 쇼코 스님과 오다케 요시아키 부대표, 도다 이쿠오(일본 작가) 및 일본 조동종 관계자가 참석해 일제의 강제 조선 침탈과정에서 희생된 한일 양국 희생자 영령들의 위령제를 병행하고 참회했다.

이어 일본 조동종 참사문비 제막식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범광 스님, 선운사 주지 범만 스님, 조계종 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조계종 중회의원 도정 스님을 비롯한 문동신 군산시장, 박정희 시의원, 이복웅 군산문화원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가로 3m, 높이 2.3m의 참사문비는 최고급 황동석으로 장문의 참사문을 요약해 일어 원문과 한글 번역문을 병기해 음각했으며 제작비용은 일본 동지회에서 부담했다.

참사문비에는 “해외포교라는 미명 하에 일제가 자행한 야욕에 영합해 수많은 아시아인들의 인권 침해, 문화멸시, 일본 문화강요, 존엄성 훼손 행위가 불교적 교의에도 어긋나며, 석가세존과 역대 조사의 이름으로 행해 왔던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행위이며 진심으로 사죄하며 참회한다. 특히 명성황후 시해 폭거, 창씨개명으로 국가와 민족을 말살해 버렸는데, 조동종은 그 참병이었다. 불법을 세속법에 예측시키고, 타민족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침탈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우리는 맹세한다. 두 번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 및 일본 조동종 스님들이 9월 16일 일본 참사문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일본 조동종의 참사문비

가로 3m, 높이 2.3m 참사문비

명성황후 시해, 창씨개명 등

일본 부끄러운 행위 참회 새겨져

새겨졌다.

동지회 회장 이치노헤 스님은 참사문비 제막과 관련한 참회사에서 “일본 불교계는 근대화를 추진하는 일본 국가권력에 협력하며 전쟁에 가담해 지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동아시아에 남겼다”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사죄드린다”고 용서를 구했다.

이어 “일본은 패전 이후 충분하게 반성했다고 말할 수 없다. 한일 불교교류는 있었지만 불자로서 진정한 참회가 없었기 때문에 표면적인 우호활동에 그치고 있어 한일 양국 불교계는 의혹과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스님은 또 “조동종이 지난 1992년 발표한 참사문이 한국에 건립되기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오늘 동국사에 제막된 참사문비가 일본 불교의 양심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사 주지 종명 스님은 “독도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의 불신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일본 조동종의 참사문비가 동국사에 세워지게 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며 “이번 참사문비 제막식을 계기로 한일 불교계는 물론 외교관계도 우호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범광 스님은 축사에서 “일본 조동종이 스스로 일제의 침범이 되어 제국주의적 만행의 과거를 참회하고 참사문을 발표한 것은 진정한 양국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노력이다”고 평가하고 “참사문비 제막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진정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협력의 역사를 열어가 는 상징이 되며 이정표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운사 주지 범만 스님은 “법구경에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마라. 원한을 원으로 써 원한을 갚으라 했다”며 “참사문비가 한일 양국의 상생과 화합의 한 송이 연꽃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치노헤 스님은 일제강점기 군산에서 발행됐던 '군산일보'를 군산시에 기증했다. 참사문비 제막식후에는 부연 스님의 법고 시연과 인간문화재 임귀성 선생의 승무공연, 고살매 농악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2011년 10월 이치노헤 스님은 동국사를 방문한 이래 참사문비 건립 없이는 진정한 한일 불교계의 교류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동국사 합동 다례제 봉행 >한일 불교문화교류 활성화 노력 >동국사 창건일 총독부 관보 게재일로 확정 >일체의 정치적 행위 배제 등 5개항을 합의한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치노헤 스님은 2012년 일제강점기 희귀자료 200여 점을 동국사에 기증한바 있으며, 2013년에 일제강점기 일체 자료 족자 21점을 동국사에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참사문비 건립을 주도한 동지회 한국회장 종길 스님은 “참사문비 건립은 한일 불교계의 순수한 종교행사이다. 정치적 의미를 배제해 달라”고 주문하고 “올 12월 경 한일 학자 20여 명이 참여하는 불교심포지엄과 동북아 연구소주최의 한국의 일본 범종(다카하시가 만든종)의 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역 청소년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전북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전북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단장 오종근)은 9월 15일 완주 송광사에서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을 진행했다.

45명의 지역 내 청소년들과 지도교사들이 동참한 이날 교육에는 나무여성인권상담소 김영란 소장이 강사로 참여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피자가게 아르바이트 학생의 성폭행 사건을 재구성한 역할극을 통해 성폭력의 위해성에 대해 공감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생활 지침인 33개 항목을 통해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 관계자는 “매월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나 서로를 격려하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며 생활습관을 점검하는 한편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이 추석을 맞아 저소득가정을 위해 쌀 2000kg을 전달했다.

추석 맞이 독거노인 위한 쌀 지원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지역 내 쌀 2000kg 전달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중추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기 위한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추석을 맞아 독거어르신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지난 9월 19일 광주 서구 농성1동, 광천동, 유덕동, 상무1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신도회에서 마련한 2000kg의 자비의 쌀이 전달됐다. 자비의 쌀은 매년 2회씩 부처님오신날과 추석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이날 전달된 쌀은 차상위계층의 수급자

와 정부지원사각지대 미지원자, 독거어르신 80세대에 전달됐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지난 1988년 개원 이래 매년 2회씩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신도회 김희남 고문은 “처음에는 매년 김치를 담가 700-800세대에 전달했으나, 최근 3년 전 부터는 신도들이 ‘자비의 쌀’을 마련해 지금까지 6,000kg의 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원은 자비의 쌀 이외에도 매년 결혼가정의 청소년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 복지서비스 향상 위해 노력

고창군사회복지시설 건강나눔 의료봉사행사 진행

고창군사회복지시설(시설장 도완)은 9월 16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고창군 건강나눔 의료봉사’를 개최했다.

열린사회와 롯데홈쇼핑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의과·내과·치과·통증의학과·기초검진 등 5개 과목에 20여 명의 의료진들이 진료에 참여하였으며, 350여 명의 지역주민 및 어르신들에게 진찰 및 약 처방 등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진료 대기시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다채로운 민속공연과 참여자를 위한 점심 및 다과 등을 무료로 제공했으며, 저소득층 아동영양캠프마련을 위한 바자회 의류 1170벌을 전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장 도완 스님은 “농어촌 지역주민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이 함께 호흡하는 세상을 만드는 좋은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창지역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네트



‘고창군 건강나눔 의료봉사’에 참여한 의료진들이 치과진료를 하고 있다.

워크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사회와 롯데홈쇼핑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고창지역을 방문해 무료

의료봉사활동 및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한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찬불가로 부처님 법 전하겠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 합창단 창립 법회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가 지난 9월 21일 광주불교회관에서 합창단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찬불가 포교에 나섰다.

서경희 합창단장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노래를 통해 불교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창립의미를 밝혔다.

창립식에는 지용현 회장을 비롯해 정영균 광주전남포교사단 등 광주전남지역 불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합창단

창립을 만났다. 지용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음성공양을 통해 불법을 알리는 포교사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남성합창단과 청소년합창단을 추가로 만들어 활동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창립한 합창단은 박헌 지휘자 외에 단원 40여명이 매주 1회 찬불가 연습을 진행하며, 오는 10월 11일 부루나합창단과 함께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정기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봉

제 41회 초대법왕일봉문도의 날 봉축 대법회

행

초대의 말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계절에 일봉문도님 여러분들과 귀빈여러분의 가내에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일봉존자님의 자비로운 은총이 항상 깃들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근대 불교사에 한 획을 그어 놓으신 우리의 스승이신 세계법왕 일봉 서경보 큰스님 제자(은, 법, 조카, 손사좌)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초대법왕일봉문도중앙회가 매년 10월 10일이면 봉축행사를 봉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제41회 초대법왕일봉문도의 날 봉축대법회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성대히 봉행하오니 공간만 다망하시더라도 부디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고 일봉존자님을 다시한번 추앙하면서 존자님의 사상이 먼 훗날까지 길이길이 이어 갈 수 있도록 다같이 기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일봉존자님의 가피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대 법 주 : 김도기 대화상 (일봉문도회 명예회장)
 대 회 장 : 송 산 (일봉문도회 수석부회장)
 봉행위원장 : 청 파 (일봉문도회 경남지회장)

사단법인 초대법왕일봉문도중앙회
 회 장 겸 이사장 의 료 서주범 합장

- 다 음 -

- ☎ 행사제목 : 제41회 초대법왕일봉문도의 날 봉축 대법회
- ☎ 일 시 : 불기 2556(2012)년 10월 10일(음, 8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1부 - 오전 10시 인기가수 축하공연
 2부 - 오전 11시 일봉문도의날 법요식
-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서울 종로구 세종로 81-3번지 / 세종홀 전화 02)735-4111~3
- ☎ 문의전화 : 02)355-0093(문도회), 02)777-0959(일봉신문사), 010-6253-4936 서병열 사무총장

* 인기가수 축하공연(10시부터) / 점심공양제공(뷔페) / 주차장 (세종문화회관 지하 세종로 주차장 이용) / 오전 10시까지 입장완료